

여행, '책이 있는 길'

休

휴식, 그 틈새에 책 한 권...

쉼(休)엔 여러 갈래의 사전(字典)적 숨은 뜻이 따른다. 아름답고, 편하고, 용서하고, 편하고, 검소하며, 기뻐한다는 등... 그저 고요하고 간명하게 일을 멈추는 표피적 일면에 그치지 않는다. 되레 역동적인 미덕이 병렬하며, 술한 행위적 지표가 쉬지 않고 함께 한다.

일 년에 한 번 휴가와 여행. 그 틈마저 책을 읽을 것까지야... 모처럼 신명나게 놀며 쉬는 그것 말고 또 뭣이 필요할까. 허나 '쉼'의 갈래 뜻이 그럴진대, 모든 정신가치의 기력을 놓아버리고 놓고 쉬기엔 시체말로 2% 부족한 느낌이다.

솔직히 말하자. 일상을 떠난 곳이 낯설듯, 적지 않은 우리들에겐 책 또한 평소 낯설다. 일 년에 한 번 모처럼의 휴가가 있듯, 모처럼 책을 만날 때도 바로 이 즈음이다. 이 틈마저가 아닌, 이 틈이야말로 활자를 대면할 때다.

홀홀 떠나보자. 다만 배낭 한켠에 책 한 권쯤은 넣고... 무작정의 육질적 노는 행위, 그 뒤끝엔 자칫 허탈한 무기력만 남을 수도 있다. 그건 '웰빙'이 아닌 '일빙'의 잔상일 뿐이다.

일년에 한번 모처럼 신명나게 놀며 쉴 때다. 맞는 말이다. 다만 그 틈새에 책 한 권 찢러넣으면 더 폼나지 않을까. '쉼'이 갖는 또다른 미덕이나의 피와 살이 되지 않을까. 이 달 <출판저널>도 '책이 있는 길'을 따라 폼나게 여행을 떠난다.



다양해진 테마 여행, 특색있는 가이드북 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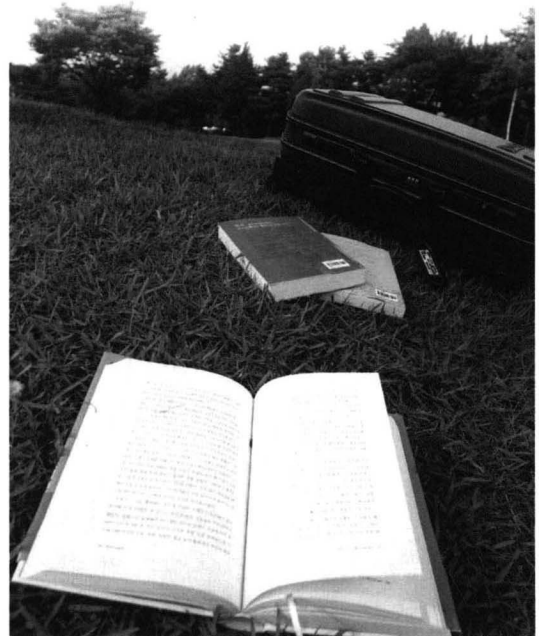
여행산문집, 다양한 테마 기획 눈에 띄어

여름을 맞아 서점가의 여행도서 코너가 활기를 띤다. 교보, 반디앤루니스 등 시내 대형서점에는 여행 가이드북 특별판매대를 설치 해 고객들이 손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했고, 온라인 서점에서는 출판사별 여행 신간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 이후 계절에 관계없이 국내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가족단위 체험학습 여행서는 꾸준한 반응을 보인다. 여가시간을 고심하는 아빠들을 위해 출발부터 도착, 교통편과 숙박 등 완벽 여행코스를 제시하는 가이드북이 인기를 끌고 있다. 《똑똑한 여행책》《친절한 여행책》 등을 펴낸 열번째행성은 독자 반응이 좋아 다양한 테마로 구성된 시리즈물을 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판사 측은 “일 중심으로 생활한 386세대 아빠들은 ‘여행’을 낮설어 한다. 그들에게 주말은 고역일 수 있다는 것에 착안 기획하게 됐다”고 출간배경을 설명했다.

국내 여행서 못지않게 방학과 휴가철을 겨냥한 해외여행 안내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교보문고 실용서 1위부터 3위를 차지한 《유럽 100배 즐기기》(랜덤하우스중앙), 《이지유럽》(블루), 《자신만만 세계여행-유럽》(삼성출판사) 등은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 사이에 유럽이 각광받는 여행지로 자리매김 하면서 본격 시즌이 되기 전 4월부터 반응을 일으켰고, 짧은 휴가를 계획 중인 직장인들은 중국, 일본 등 비교적 가까운 거리의 저렴한 여행지를 선호하며 관련 여행서적을 찾고 있다.

유명작가가 쓴 에세이 형태의 기행도서가 봄을 이뤘던 작년과 달리 올해 여행서는 산문집에 안내서 역할을 보강한 테마 여행도서가 인기다. 여행을 자주 갈 수 없었던 예전에는 최대한 많은 나라와 도시를 구경



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여행문화가 일반화 되면서 한 번 방문했던 곳이라도 장기간 또는 테마를 갖고 집중적으로 관람하는 경우가 많아진 까닭이다.

최근 여행을 주도하는 30~40대들은 주로 1990년대 배낭여행, 어학연수 경험자들로서 해외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오히려 견문을 넓히고 일상 탈출 등의 자유를 만끽하기를 위해 여행 매니아층을 형성했다. 이들은 마음에 드는 한 도시, 한 국가에 여러 번, 오랫동안 머물고, 또 색다른 여행지를 찾거나 새로운 테마를 계획해 재방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삼성출판사는 한 권의 안내서를 세 권으로 분리 가

능한 분책 가이드북을 내놓았다. 유럽 곳곳의 안내를 아우르면서 원하는 곳만 골라 참고할 수 있도록 재편집한 것에 대해 관계자는 “한 곳에 집중해서 여행하는 최근의 여행 패턴을 고려해 최대한 가볍게 소지하면서 참고할 수 있도록 나라별 묶음으로 분책을 내놓게 됐다”고 전했다. 다양한 여행경험을 통해 남들과 차별된 테마를 가지고 여행하길 선호하는 여행 매니아들의 기호에 발맞춰 《100배즐기기》시리즈로 여행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랜

덤하우스중앙은 단기여행자들이 주로 가는 국가를 선정, ‘핵심유럽’ 안내서를 새롭게 발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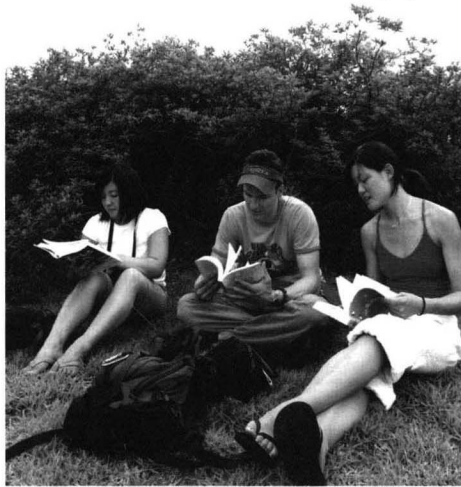
남들과 동일한 여행코스보다는 기본적인 루트 위에 자신만의 테마를 누릴 수 있는 특색있는 여행코스를 스스로 짜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책 중간마다 자신만의 여행지 이동경로를 짤 수 있는 플랜페이지가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이지유럽》을 출간한 블루여행사는 여행객들의 구미에 맞는 다양한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초보자들도 책만 보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가이드북을 만들었다. 여행사 관계자는 “여행패턴이 패키지에서 자유여행으로 급속도로 전환되면서 가이드북 의존도가 높아졌다.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를 참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이드북은 여행필수품이 되면서 자세한 정보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출판사별로 자사의 이미지를 고려해 개발한 가이드북도 눈에 띈다. 디자인 문화예술 서적을 출간하는 안그라픽스는 《젊은예술가의 세계기행》시리즈를 내놓으며 본격 여행안내서 출간을 시작했다. 지난해 출간한 《박훈규 언더그라운드 여행기》가 좋은 반응을 얻은데 이어 올해에는 《나는 카메라만 잡으면 떠나고 싶다》 등 ‘젊은 예술가의 세계기행’ 시리즈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안그라픽스는 문화예술 가이드북 시장이 크지 않지만 틈새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스위스, 이탈리아

“출판사 이미지 부합 도서, 국내 여행 출간물 활발 도시 위주 단기 여행객용 가이드북 ‘인기’ ”



리아 등 유럽 여행지들이 디자인, 예술 전공자들에게는 전문적인 테마를 갖고 여행하기에 적합한 곳이라 여기고 관련업계 전문가들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안내서 형식으로 기획했다고 말했다.

테마 여행서이자 문화예술 이미지를 접목시킨 이들 도서는 사진을 보장하고 사진, 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안목으로 관련 여행지의 테마를 부각시킨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에세이 형식이지만 가이드북의 역할도 겸할 수 있도록 여행정보를 많이 수록해 일반 여행객들에게도 참신한

느낌으로 다가서고 있다.

외서를 번역, 출간한 여행서들도 꾸준한 인기다. 《죽기 전에 가봐야 할 100곳》《론리 플래닛》 등 해외 저자들이 집필한 이들 여행서는 국내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해당 국가의 문화와 역사 등을 바라보는 관점이 독특하다는 평을 받으며 판매 상승세를 보인다.

여행의 의미와 목적이 다양해지면서 출판사들 간 독자 성향을 고려한 새로운 아이템 경쟁이 높아지고 있다. 한 출판인은 “일상에 얽매어 현실적으로 여행을 갈 수 없는 독자들은 책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므로 에세이 기행문들이 인기를 얻는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전했다.

20~30대 여성들을 주 타겟으로 삼은 쇼핑, 브런치, 스타일 여행 등의 테마여행서와 주말 해외여행객을 위한 ‘도시 안내서’ 시리즈물도 여러 곳에서 기획중이다. 랜덤하우스 중앙 편집부는 “7월 초 상하이, 방콕 등 인기 많은 해외 도시만을 소개한 여행서를 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머무는 여행, 자유, 행복을 테마로 한 아이템들이 경쟁적으로 출간 될 예정이다. 이밖에 네팔과 쿠바 아프리카 등 관심을 얻지 못했던 국가들에 대한 여행서들도 인기를 얻을 전망이다. [E]

취재 송보경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